

# 老人期の問題

李 玉 周

〈서울女子大學 教授〉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산업화와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老人人口는 고립된 존재로서 문제시되고 있다. 또 노인인구의 생활과 삶의 뜻은 개인적인 적응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過去 가족중심의 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었던 시대의 儒敎的인 가족관계로부터 벗어나 개인중심의 성취위주의 사회로 접어들면서 老人의 문제는 이미 사회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 老年期란 문화나 사회에 따라 다르며, 또한 개인차도 심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다.

老年期는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權利란 면에서는 청장기의 성인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생리적 변화와 더불어 心理的, 社會的 變化 및 건강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노년기의 특성을 나타내지만 다른 면에서는 아직 퇴화됨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 1. 老齡化의 過程

老齡化란 누구에게나 오며 이것이 심한 시련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의미에 차이가 있다. Sontag는 말하기를 사회적으로 女性이 男性에 비하여 고통을 더욱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즉 老齡化는 여성에게 좌절과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며 자기 가치를 잃게 한다는 것이다. 農耕社會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생산적인 역할이 부여되었으나 산업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現代社會는 강박한

사회로 변화였고 數字에 매어 있어 生産結果나 成就度를 수량화하며 어느 정도가 안되면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 (1) 性別 差異

생리적인 노령화는 여성이나 남성에게 性호르몬의 감소로써 같은 현상을 가지고 오지만 性差와 이에 따른 반응은 文化的 價値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남성에서 體力이나 能力의 감소가 갈등과 좌절의 원인이 된다면 여성에서는 신체적 매력의 감퇴가 문제시된다.

또한 Inge Bell에 의하면 노령화과정에서 心理的, 性的, 經濟的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즉 남성에게 있어서 50대 후반에 들어가기 전에 나타나는 얼굴의 주름살은 여성의 것과 같이 절대적 의미는 갖지 않으며, 남성의 위모는 여성과 같이 性的 價値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남성의 가치는 도리어 知能이나 경제력이 신체적 매력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通念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여성은 年齡이 더해감에 따라 사회적으로 그 價値를 잃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많은 화장품 회사의 요란한 광고가 유용하게 느껴질 수 있다. 또 교육적 배경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여성은 자신의 나이를 숨기려고 한다. 즉 사회적으로 性에 따른 二重的 價値觀을 가지고 그 때문에 이러한 사회에서 노령화에 대한 여성의 고통은 가중되고 이와 같은 심리적 억압은 適應 障礙 및 健康障礙로도 나타난다.

## (2) 사회계급에 따른 차이

여성의 노령화에 따른 심리적 타격은 그들의 사회계급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다. 중산층에서는 젊음을 잃어간다는 것을 치명적인 것으로 여겨 갱년기 장애현상을 가중시키나, 저소득층의 노동계급의 여성은 운命的인 것으로 받아드리게 된다. 물론 어느 여성이던지 老年期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기다리는 여성은 없다. 아름다움을 잃어 버릴뿐 아니라 역할을 잃어가며 직장이거나 가까운 친구와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어 버림으로써 고립되게 된다. 우리사회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노인은 피롭고 귀찮은 低價値한 존재로 강조되고 있다.

## 2. 老人問題의 要因

老人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다름과 같은 여러 要因에서 오고 있다.

### (1) 老人人口의 증가

우리나라에서는 6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975년에 있어서 전체 인구의 약 6%를 결해서 200만명으로 남자가 약 80만명이고 여자가 약 120만명이었다고 한다. 지역별로는 도시에 약 65만명, 농촌에는 약 130만명이 살고 있었다. 老人들의 수명이 연장되었지만 그것보다는 영유아사망률이 감소됨에 따라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따라서 노인인구가 증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1900년대에 평균수명이 50세이었으나 1975년에는 70세로 늘어났다. 또 여성의 수명이 남성에 비하여 긴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 폭도 1940년에는 4.3년이던 것이 1973년에 와서는 7.2년으로 증가되었다. 이와같은 수명의 性差의 변화는 생리적인 차이보다 사회적 역할에 있어 남성이 보다 많은 심리적 부담을 받기 때문으로 풀이 하기도 한다.

### (2) 核家族化

우리나라에서는 자손들이 그들의 父母나 祖父母를 봉양하는 美風이 있으나 종래의 가족관계에서 老年期의 父母나 祖父母가 家長으로서의 누릴 수 있었던 權利와 地位는 점차 무너져가고 있고, 子女들이 父母봉양을 부담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老人의 70%가 기혼자녀와 동거하고

있어 이는 미국의 30%와 비교한다면 많은 편이나 未婚子女와 동거의 경우가 30%인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核家族化가 많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老人들의 의견은 同居를 원하는 경우가 80%로 실제 동거하는 경우보다 10%나 많은데 이는 老人들의 희망대로 가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핵가족에서는 家事決定權이 주로 夫婦에 속하며 老人들은 할 일을 잃은채 뒷전에서 젊은세대를 바라다 보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사례가 늘어난다. 住居樣式에서부터 食生活의 형태까지도 核家族의 生理는 老人에게 있어 마땅한 것일 수가 없다.

### (3) 價値觀의 變化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의 발달은 젊은이들에게 孝行이나 敬老思想을 강요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사회풍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老人을 父母로 존경하고 弱者로서 보호하며, 여성의 고독을 덜고 편히 모시고자 하는 생각에 앞서 老人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모든 사회에서 볼 수 있는 父母, 子女間의 인간관계의 변화과정에서의 문제는 父母가 노령화되어 감에 따라서 증가된다. 즉 신체적 기력이 쇠약해지면 子女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父母 子女間의 갈등은 인간발달의 어느 時期에서라도 같이 世代差로서 나타나는 흥미, 가치관, 태도 및 견해의 차이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갈등은 父母, 子女間의 애정으로는 그 극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관여하려 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독신자가 늘어나 65세 이상되는 노인들의 8%가 독신이며 국가나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집단의 25%는 子女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 물론 兄弟姊妹에게 의존할 수도 있으나 확대가족제도의 붕괴로 가까운 친족을 갖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理由로 많은 老年期 成人들은 子女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며 정년퇴직을 위하여 미리 준비를 하게 된다.

## 3. 老人問題의 內容

### (1) 生計의 不安

노인들은 비록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생계를 收入에 의존할 수 없게 된다.

全國 老人의 약 80%가 독립적인 生計能力이 없으며 65세 이상의 老人들 중에서 생계가 극히 곤란하여 生活保護法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약 15만명이고, 양로원 등 시설에 수용보호되어야 할 老人은 약 1만명이며,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자는 약 50만명이라고 한다(현두일, 1975).

그러나 현재 45개 양로원에 약 2,500명의 노인이 수용되어 있고 시설이나 보호 내용도 未備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거의 모든 老人은 子女들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 (2) 健康問題

우리 社會에서 아이가 아플 때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가지만 老人에게 어떤 疾病이나 症狀이 생기면 老齡이니까 依例히 그러려니 하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依持할 곳이 없거나 경제적 기반이 없을 경우 病醫院에 갈 수도 없다. 실은 氣力이 쇠진하고 정신적으로 침체된 상태에서는 질병이 誘發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老人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고민이라면 疾病과 死亡에 대한 공포를 들 수 있다. 健康은 수명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長壽와의 관계에서 보면 신체적 기능, 일에 대한 만족도, 수명에 대한 기대, 지능 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Palmore, 1978). 이는 老人의 심리적 건강이 신체적 건강에 못지않게 중요함을 말해 준다. 오래 살고 싶고, 生活에 만족하고 일할 수 있을 때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老年期에는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老年期에 나타나기 쉬운 정신질환도 문제가 된다고 한다 미국에서 施設에 수용된 1,300명의 老人에 대한 調査를 통해서 얻은 바로는 정신의학적 요인, 의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질병의 영향이 死亡原因으로 第1位라는 것이다. 심리적 적응능력도 수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을 여러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데 행복한 가족관계를 통하여 이러한 문

제는 해결되거나 감소된다. 老人의 死亡의 原因으로 배우자의 死亡이나 離別을 들 수 있다. 心理的 緊張感이나 좌절감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환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 (3) 孤獨과 疎外感

家事에 대한 決定權을 잃고 公職生活에서 물러나고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상실한 老人들은 스스로가 社會나 家庭에서 불필요한 存在가 되어 버렸다는 소외감에 빠져들어 고독감을 加重시키게 된다.

정신적인 空虛로 인하여 자연히 子女에 대한 기대나 의존도는 더욱 그 정도를 더하게 되므로 子女들과의 갈등은 점차 深化된다.

### (4) 勞動力의 遊休化

건강한 老人에게 할 만한 일이 주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참기 어려운 괴로움이 된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사람은 관광지를 찾아서 여행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더욱 소일거리를 아쉬워하게 된다.

### 4. 老父母의 扶養

과거에 있어서 子孫이 老父母와 同居하여 物質的 및 心理的으로 봉양하였으나 近來에 와서는 別居扶養의 形態로 바뀌어지고 있다. 扶養內容도 物質的으로 도움을 드리는 경우와 日常生活을 통한 시중을 드리는 경우, 問安이나 드리고 父子나 母女關係를 계속 유지하여 心理的인 滿足을 求하려는 경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扶養方法은 家族의 經濟的 條件, 家屋構造, 家族構成員의 직업 등 여러가지가 문제된다.

現在 우리나라의 大部分의 老人들이 獨立的으로 經濟能力이 없으므로 同居하던지 別居하던지 간에 子女들이 經濟的 扶養의 義務를 가져야 할 事情이다.

노인문제는 核家族化에 따라 심각해지는 것으로 老人들의 심리적 고립 즉 고독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산업사회에서는 불가피한 것이며 社會的인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되기도 한다.

주어진 擴大家族의 장점과 核家族化의 필요성을 조화있게 조절하여 노년기의 고독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